신아일보 뉴스를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만나보세요

농어촌공사 포항·울릉지사, 가입연령 완화된 농지연금사업 박차

배달형 기자 | 승인 2022.02.25 11:18 | 댓글 0

>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

한국농어촌공사 포항·울릉지사는 25일 만 60세 이상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에 18억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농지은행사업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.

농어촌공사는 2022년도 포항시·울릉군 농업인들을 위해 19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, 이 중 18억원은 농지연금 사업에 투입한다.

특히 올해부터는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.

농지연금이란 고령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지난 18일부터 그 가입연령조건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되었다.

이는 농지연금가입자 중 만 65세에서 만 69세 가입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목돈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농업인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.

장현문 지사장은 "농지연금은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도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만큼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하며 포항시· 울릉군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.

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·울릉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[신아일보] 포항/배달형 기자
bdh2523@hanmail.net

저작권자 ©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